

기다림의 씨앗이 발아된 생의 美學

지난여름의 끝자락 8월 30일 오후 산본 로데오거리 특설무대에서 제16회 군포예인예술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제12회 군포예술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인간적이고 호탕한 성격이 매력인 중견화가 이상훈 군포미술협회 지부장이었다. 『군포예술』에서 그를 만나봤다.

우선 제12회 군포예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인터뷰는 평소 이상훈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본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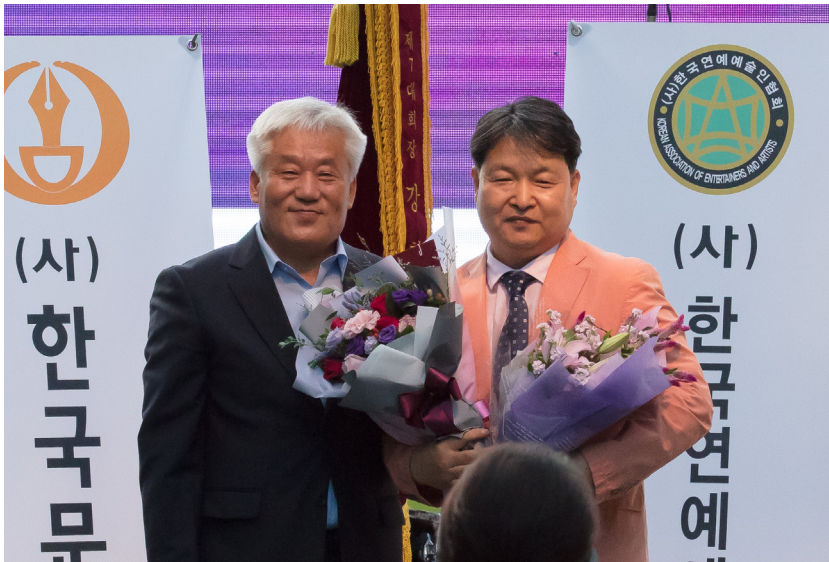


평소 가장 궁금했던 질문, 그의 미술작품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꽃봉오리에 대한 의미를 물었다. 일단 그가 처음 꺼낸 말은 ‘기다림’이었다. 이상훈 작가, 그가 오래도록 매진해온 작품들에 등장하는 무수한 꽃봉오리들이 곧 그의 작품의 주제가 ‘기다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 과연 그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처음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첫 회 개인전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주제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정서적으로 관람하는 이들에게 서정적이거나 혹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이후부터 자연적인 것에 입각해서 꽃이 활짝 피기 전 꽃봉오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美)라고 하는 것은,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화려함보다는 꽃을 피우기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짝 핀 꽃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린 것이라면,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는 절정을 보여주기 전의 단계로 곧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그 부분의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고 꽃의 미학으로 함축해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 꽃봉오리는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봄이 오기까지의 기대나 설렘을 담고 있어서 미학적으로 활짝 핀 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첫걸음마를 하고 유년의 시절을 거쳐 차근차근 성장의 과정을 밟아 중년이 되어가는 것처럼 작품 작업을 하는 동안 미래와 과거가 꽃봉오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느낌도 줄곧 받아왔고 소재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결론을 내기 이전의 단계로 화가로서 저와 맞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그 주제로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집약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가노트〉

나의 작품소재는 주로 자연과 과거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형상화 해나가는 과정이다. 자연을 접하면서 체험하고 학습하고 호흡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어쩌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꿈을 꾸는 것이며 나 외에 그들 모두가



초현실적인 세계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연 속에 감추어진 내면적인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형상화 하는 작업이다.

인간이 결국 안주할 곳도 자연이고 이 자연만이 기대할 수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창조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을 끊임없이 창출하게 한다. 결국 그 모든 생성은 자연으로부터 창조되고 모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자유인들이 느끼는 자연의 상상의 세계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줄곧 견지해왔던 내 작품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의 바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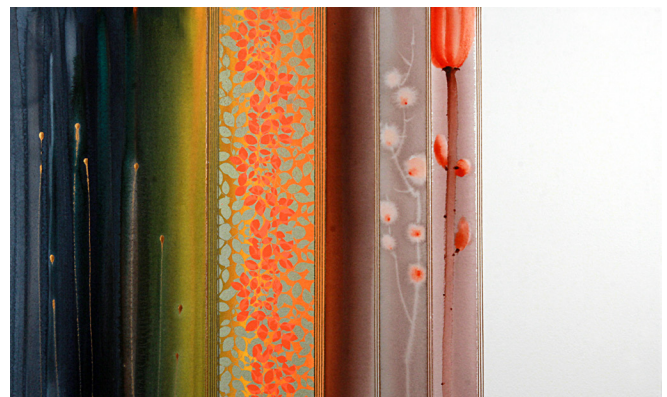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작가로서 그리고 현실과 삶에 충실한 이 시대의 생활인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심을 펼쳐 버릴 수 없고 다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각적 메시지로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근간에 이르러 내 머리 속에서 한 돌씩 연상되어지는 우리 인간-자연에 대한 함수관계를 단편적으로나마 분석하고 재정리하여 화폭에 담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그렇게 드러나는 나의 작업들 속에서 탐구의 끈을 놓지 않고 의문들을 제시해 본다.

작품과 <작가노트>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과 함께 끊임없이 사유(思惟)하기를 원하는 이상훈 지부장은 경기도 이천에서 만석꾼의 1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그가 아홉살 때 그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정을 많이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차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생전에 아버지가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그의 형제들 간의 우애가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훗날 형들과 누나들은 그에게 큰 그늘이었다고 한다. 많은 형제들과 어울려 지내온 그는 친구들과의 사교성도 좋았고 축구를 잘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천의 축구대표로도

출전하였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축구를 계속 했다. 그러다 큰 사고를 당해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의 친구가 신문배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도와 함께 신문배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아침 신문배달을 하다가 기름 냄새가 나서 가본 곳이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였다 한다. 그 계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 곧 미술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천 시골마을에서 그가 미술을 시작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 어머니께서는 막내아들의 부탁이라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아셨는지 큰 형님이 오셔서 ‘화가는 심히 배고픈 직업’이라며 고생문이 흰하니 그만 두라고 하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열다섯 살 나이에 처음으로 가출이란 것을 했고 수원에서 자취를 하던 친구의 자취방에 얹혀서 짜장면 배달을 하며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셨고 그림을 그려도 좋으니 함께 가자는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줄곧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했었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그해 바로 경기도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시골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때부터는 형제들의 후원을 받아가며 마음껏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의 모교인 수원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박승규 교수님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제 미술세계에서 창작활동과 미래 설계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특히 아픈 몸으로 이천까지 자신의 작품을 전해주시며 저의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의 따뜻한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상훈 작가, 그 역시 이십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청소년들과 후배들을 지도해왔고 그가 지도한 제자 중에는 이말년(이병건) 같은 웹툰작가나 패션디자이너인 김아영(까이에 대표) 같은 유명인도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가르쳐온 제자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고 늘 조언을 한다면서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그 기다림을 위해 젊은 날의 소중함을 늘 강조한다고 한다.

그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그들 속에 잠재된 꿈의 씨앗이 발아하기를 바라며 작품으로써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상훈, 그가 그려내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꽃봉오리 속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그리고 희망이 예술혼으로 살아나 군포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세계로까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대담 및 글 이은희

이상훈 LEE SANG HOON

개인전 8회

대한민국미술대전/경기미술대전/회룡미술대전/관악현대미술대전/행주미술대전/안산국제아트페어/ 코리아미술대전 / 신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역임

현 : 군포미술협회 지부회장, 사단법인 생활공예협회 협회장, 한국미술협회 분과이사, 환경미술협회회원, 새물수채화 회원, 단원작가회 회원, 안양청년작가회 기획국장, 수리청년미술작가회

